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대한민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독도





독도재단 소개 및 주요 사업 6

I. 미리 만나보는 우리 땅 독도 16

1. 독도 일반 현황
2. 독도의 사람들
3. 독도와 자연
4. 독도 생태계
5. 독도의 미래

II. 꼭 알아야 할 독도 역사 32

한눈에 보는 독도 연표

1. 고 문헌 속의 독도
2. 고 지도 속의 독도
3. 역사 속 독도 인물
4. 독도 명칭의 변화
5. 독도의 진실
6. 독도 수호를 위한 노력
 - 중앙정부
 - 지방정부(경상북도)

III. 미리 풀어보는 독도 골든벨 86

1. OX문제
2. 난이도(하)
3. 난이도(중)
4. 난이도(상)
5. 패자부활전

IV. 내 손안의 독도 이야기 114

1. 독도 지명(지도)
2. 독도 및 부속도서
(표기 기준과 좌표)
3. 독도누리집 소개
4. 해좌전도(지도)

독도 우체통 이야기

선주중학교 3학년 박성은

인제부터인가
독도에 우체통이 서 있기 시작했다.

사람이 만든 우체통과
하늘이 키운 땅채송화가
함께 자라는 그곳

독도에 더 잡은
온갖 생명들 이야기
우체통 속에 들어가 앉는다.

괭이갈매기가 이쁜 아기 재울 때
어떤 노래를 불러 재우는 지

곰딸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향긋러운 지

이른 새벽 동살보다 더 빨리 잠 깬
섬땅방아벌레가
얼마나 부지런히 방아 찧는 지

독도 우체통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두 달에 한 번
그 우체통 활짝 열리고
온갖 소리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고
우리나라 말로 재잘재잘 까부는
잘 들어보면

독도의 주인이 누구인 지
의심할 수 없을 걸.

설립 목적

재단법인 독도재단 정관 제1조(목적)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설립 기본 방향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 민·관 공동설립을 통해 범국민적 자율 참여 유도
- 전문 연구기관·단체 참여로 재단의 전문화 도모
- 해외 주재원의 참여를 통한 글로벌화 추진

연혁

- 2008. 11. 10. (재)안용복재단 준비위원회 개최 (준비위원장 노진환)
- 2008. 12. 23. 발기인대회
- 2009. 3. 31. 설립 허가(경상북도지사)
- 2009. 4. 6. 설립 등기
- 2009. 5. 18. 재단 개소
- 2014. 5. 15. (재)안용복재단 → (재)독도재단 명칭 변경
- 2015. 7. 1. 사무처 조직개편(1처 3팀)





MISSION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814호 1975. 12. 31 제정)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제3079호 2009. 3. 9 제정)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VISION

세계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섬,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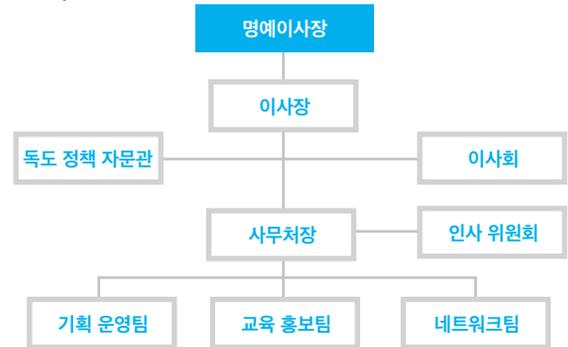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섬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안용복의 독도수호와 독도사랑 정신을 국내 외에 전파하고 나아가 독도의 아름다움과 독도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독도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 독도사랑 정신 전파와 전 국민의 독도 전문가 실현



조직도



독도재단 주요사업



국민교육 프로그램

독도 바로알기

- 기존의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독도교육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독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오감(五感)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독도

- 해외한국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독도사랑 의식 고취와 독도 홍보의 글로벌화
-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해외한국학교 교사 독도연수

- 해외한국학교 교사들의 독도방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진실 전파로 글로벌화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
-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 기대 및 현지 학생 재교육과 독도 홍보 전도사 역할 부여

홍보 프로그램

대한민국 독도문화 대축제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를 기념, 독도사랑 행사 마련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 독도홍보버스를 통해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

독도문예대전

- 국민들의 국토사랑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

매거진 '독도로' 제작

- 독도 관련 역사, 문화 등 사실을 기록 및 전파하고 홍보

온라인 홍보 활동 강화

- 홈페이지 및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독도재단 홈페이지 www.koreadokdo.or.kr

독도재단 블로그 dokdojd.blog.me

독도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kdojd

독도사이버전략센터 'K-독도' 운영 www.k-dokdo.com



현장체험 프로그램

우리 땅 독도 밟기

- 영주권 국군장병,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외국인 유학생, 국내 외국인 교수,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울릉도·독도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수호에 대한 동기부여

대학생 독도사랑캠프

- 대학생들에게 독도영토주권 인식을 심어 주는 한편, 독도수호 정신을 함양
- 독도 체험을 통하여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속에서 아름다운 국토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

독도 in 스토리텔링

- 대학생 독도동아리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도와 나라사랑 마음 고취
- 대학생 독도동아리와 함께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알리는 다채로운 동아리 행사 추진
- 대학생 독도탐방단 구성으로 다양한 독도 홍보활동 전개



네트워크 강화

독도침탈 대응 및 독도수호

- 일본의 방위백서와 교과서 왜곡 등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

대한민국 독도사랑 한마음 대회

- 독도에 등 록 기준지(본적)를 둔 사람들을 초청, 독도에 대한 진실과 관련 독도사랑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재단 회원으로 확보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공동 대응

독도관련단체 네트워크 통합 구축

- 독도 관련 민간단체 결성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화하여 일본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 마련
- 연구 협의체 구성 및 독도수호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대학 독도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

- 대학 독도동아리 결성을 통해 독도 애(愛) 고취 및 독도수호 활동 강화

글로벌라이징 선포식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독도홍보 서포터즈로 위촉
- 독도의 소중함과 진실을 각국의 언어로 SNS에 전파하고 국내외 독도사랑 실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토수권 강화



연구 프로그램

독도아카이브 자료수집

-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독도 영토주권의 객관적 입증 자료 수집, 발굴
- 독도 관련 각종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연구 성과 등을 제공

독도 학술조사 심포지엄

-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제적 관점에서의 조명과 관련 학자들의 학술적 교류
- 독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이론적 토대 구축 및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독도사료 출판

- 국내외 독도 관련 사료를 분석,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허구성과 역사왜곡 자료 발간
- 연구 성과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통해 국내 독도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영토주권 루트답사

- 독도 영토주권과 관련, 안용복의 활동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일간의 기록을 비교·대조 분석, 논리 개발
-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권위 있는 이론 정립과 이에 대한 국내외 홍보로 확고한 영토 개념 수립



I. 미리 만나보는 우리 땅 독도



www.koreadokdo.or.kr

1. 독도 일반 현황	18
2. 독도의 사람들	20
3. 독도와 자연	22
4. 독도 생태계	26
5. 독도의 미래	28

1. 독도 일반 현황

위치

독도는 행정구역상 우리나라 최동단의 아름다운 섬이다. 거리상으로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다.



※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조망이 가능하지만 오기섬에서는 불가능

구성 (독도현황 고시, 2005. 6. 28.)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도서(25,517㎡)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간 최단거리는 저조시를 기준으로 151m 떨어져 있다.

동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73,297㎡, 높이 98.6m, 둘레 2.8km이다. 접안시설, 경비대, 통신탑, 위성안테나, 유인등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서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88,740㎡, 높이 168.5m, 둘레 2.6km로 가장 높은 지형과 넓은 면적을 지닌 섬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주민숙소, 등반로, 음용시설(물굴)이 있다.

기 후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기 온	최저온도 13.6℃, 최고온도 34.6℃, 평균기온 12.2℃
강수량	478.7mm(2011~2015년간 평균) 겨울철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연중 85% 가량이 흐리거나 눈-비(강우 일수 150일)
바 람	연평균 풍속이 4.3m/s 여름에는 남서풍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
표면 수온	최저 온도 3~4월 10℃ 전후 최고 온도 8월 25℃ 전후
표면수 농도	염분 33~34‰, 산소량 6.0㎖/l, 투명도 17~20m (높은 염분 농도, 맑고 투명한 수역 형성)
해 류	- 남쪽에서는 쿠로시오 난류의 한 지류인 쓰시마 해류가 대한해협을 지나 북상 • 겨울철에는 독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선회 • 여름철에는 쓰시마 해류가 독도보다 북상하여 선회 - 북쪽에서는 리만 한류의 한 지맥인 북한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

독도 주소

(우)402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34, 37~96번지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주민숙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2. 독도의 사람들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독도입도 배경

- 울릉도 어업인 최종덕은 1965년 독도 공동어장 채취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후 22년간 독도에 거주하며 어로 활동 및 관리

독도에서의 발자취

- 독도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수중 창고를 마련하고, 전복 수정법, 특수어망을 개발하는 등 어업인으로서 큰 발자취를 남김
- 독도에서의 원활한 어로 활동을 위해 서도에 벽돌로 집을 지어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건조장과 물골로 가는 998계단을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독도에서 생활
- 1981년 10월 14일 독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독도주민 1호가 됨

독도 거주민(2016년 8월 기준)

- 주민 : 김성도(1940년생)·김신열(1937년생) 부부
- 주민등록 등재자 : 28명(27세대) 등록
- 명예주민증 발급자 : 27,120명(외국인 340명 포함)
- 등록기준지 이전 국민 : 3,210명

독도 근무자 현황

독도 경비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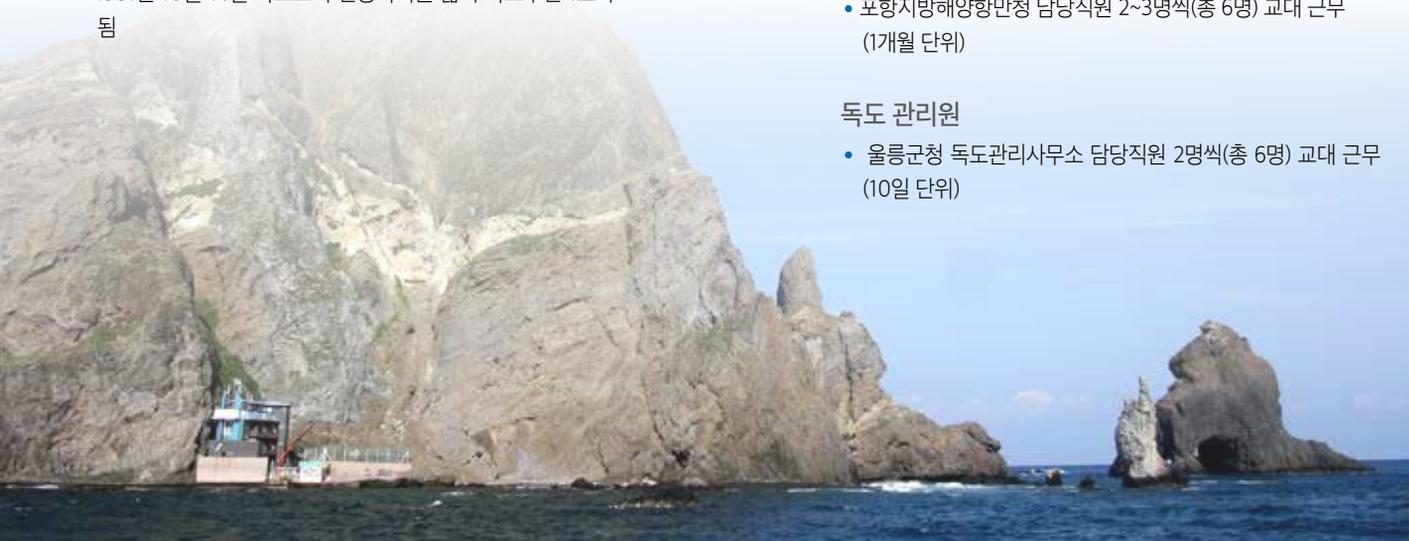
-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경찰관 4명, 독도경비대원 36명 등 약 40명이 교대 근무(50일 단위)

독도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담당직원 2~3명씩(총 6명) 교대 근무(1개월 단위)

독도 관리원

-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담당직원 2명씩(총 6명) 교대 근무(10일 단위)



3. 독도와 자연

지형

독도 주변의 대표적인 도서로는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닭바위, 솟돌바위, 독립문바위, 한반도바위, 군함바위, 넓덕바위, 코끼리바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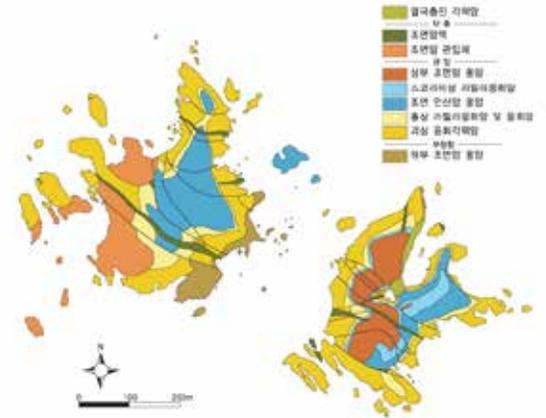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신생대 3기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

※ 독도(약 460만년 전), 울릉도(약 250만년 전), 제주도(약 120만년 전)

부속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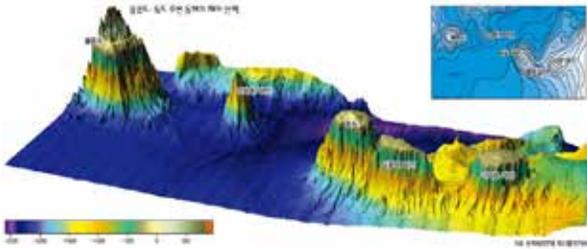
지질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구 성	- 화성쇄설암, 용암과 관입암 등의 화산암들로 구성 - 3차례의 폭발과 용암 분출을 반복하여 8종의 암석단위로 층서를 이룸
동도의 정상부	- 해발고도 98.6m, 정상부근은 비교적 평탄 - 두께 20~30m의 토양층이 분포하여 초분류가 서식 - 바다를 향한 사면은 대부분 높이 30m 내외의 경사가 급한 해식애로 이루어져 토양층이 결여되거나 얇아 식생피복이 대단히 불량
서도의 정상부	- 해발고도 168.5m, 좁고 날카로운 능선 - 남서쪽 해발고도 100~140m 사이는 다소 평탄한 지역으로 초분류 분포

해저지형



<p>제1독도해산 (독도해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위 37° 15', 동경 131° 52' - 제1독도해산 위에 독도 위치 - 서쪽으로는 수심 2,100m로 경계 지어지고, 동쪽으로는 제2독도해산 서쪽과 수심 800m의 해저골을 두고 분리 - 정상부는 수심 60~200m 정도이며, 경사도가 2° 미만으로 매우 완만하고 평탄한 파식대지(평정봉)를 형성 - 많은 해저곡(Valley) 형성, 이 해저곡들은 심해의 울릉 분지로 연결
<p>제2독도해산 (탐해해산) 심홍택해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위 37° 9', 동경 132° 2' - 제1독도해산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 - 동쪽은 수심 약 800m에서 경계지어짐 - 주변 사면의 경사도 약 13도, 정상부의 경사도 약 2도, 수면 위로 노출 부분 없음
<p>제3독도해산 (동해해산) 이사부해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위 37° 11', 동경 132° 20' - 제1독도해산으로부터 55km 떨어진 오키뱅크 서쪽 경계부에 위치 - 화산체의 상부대지가 가장 넓은 반면 해산 기저부로 부터의 높이는 약 600m로 가장 낮음



4. 독도 생태계

식물 및 생태계

-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
-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어 섬 생물지리학적(Island Biogeography)으로 중요한 도서
- 화산섬인 독도의 식물상 분포가 제한적이고 열악한 서식 환경 때문에 독도의 곤충상은 매우 특이함
- 독도는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서 구원섬(Rescue Island) 역할

※ '독도 사철나무'(천연기념물 제538호, '12. 10. 5)



독도 생태계 주요 현황 (대구지방환경청, 2013)

식물

-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60종(種) 내외
 - 초본류 : 땅채송화·해국·섬기린초·갯까치수염·왕호장근 등
 - 목본류 : 사철나무·동백나무·섬괴불나무·보리밥나무 등
- ※ 섬기린초는 울릉도와 독도의 고유 자생식물

곤충

- 미동정 30종을 제외한 총 134종
- 독도는 많은 곤충의 '생물지리학적 한계선' 역할
 - 독도장님노린재 : 세계분포상 북방한계선
 - 초록다홍알락매미충 : 세계분포상 동방한계선
 - 섬땅방아벌레 : 세계분포상 서방한계선

조류

- 독도에서 확인된 조류는 총 175종
 - 갯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의 집단 번식지
 - 멸종위기종인 매를 비롯하여 도요새, 흑비둘기, 참새 등 다양한 조류 서식

해양생물

- 한류와 난류의 조경수역으로 해양생물이 풍부
- 주요어류 : 꽁치·방어·복어·전어·붕장어·가자미·도루묵·임연수어 및 조피볼락 등
- 패류 : 전복·소라 및 홍합 등
- 해조류 : 미역·다시마·김·우뚱가사리 및 툯 등
- 기타 수산물 : 오징어·해삼·새우·홍게 및 성게 등

5. 독도의 미래

독도 해저 자원

독도의 미래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에 둘러싸여 고체로 변화한 것.
 - 수심 300m 이상의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되며, 일명 메탄 수화물, 메탄 하이드레이트, 불붙는 얼음, 고체 천연가스로 불림.
 - 다른 연료보다 공해가 적고 이것이 있는 곳에는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05년 6월 울릉도 남쪽 100km 떨어진 곳에 6억 톤 정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
 -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 생성, 축적된 물질이라 채취가 어려워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미네랄의 보고,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

- 수심 200m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로서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어 온도가 일정하고 무균 상태인 청정수이므로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
- 우리나라 동해는 90% 이상이 해양 심층수여서 가치가 높음.
 - 현재 울릉도 해양심층수는 식품, 음료수, 소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군사안보적 가치

- 독도의 중요성은 1904~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입증됨.
- 동해의 방위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한·러·일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또한 독도는 주권의 관점에서도 한국인에게 주는 의미가 큼.
-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첫 희생지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임.

경제적 가치

- 독도의 수산업 가치를 보면, 독도는 북한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한류와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
- 여름과 가을에는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어장이, 겨울에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어장이 형성됨.
-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파랑돔, 독가시치, 옥돔 등의 아열대성 어종이 많아진 반면 해삼, 뽕소라, 전복 등은 줄고 있음.
- 독도의 수산물 가운데 주요 수입원은 오징어, 대구, 연어, 공치, 미역, 전복, 해삼 등임.

지리환경적 가치

-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 예보, 어장 예보, 지구환경 연구에 적합하며, 해양 과학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손색이 없음.
- 아울러 선박의 긴급 대피와 정박지, 사고 시의 구조기지, 항공기의 유도기지로서도 활용됨.
- 독도는 생성된 시기가 울릉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질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됨.
- 독도는 심해로부터 2,000m 높이로 솟구쳐 있는 해산 구조를 지녔으며 해수면 위로 폭발하는 분출 과정 및 섬이 된 뒤의 과정을 보여주므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지질학적 사례임.
- 독도의 지형 역시 화산 지형, 해안 지형, 풍화 지형의 형태를 모두 가진 특이한 구조를 보여줘 경관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님.



II. 꼭 알아야 할 독도 역사



www.koreadokdo.or.kr

한눈에 보는 독도 연표	34
1. 고 문헌 속의 독도	38
2. 고 지도 속의 독도	42
3. 역사 속 독도 인물	49
4. 독도 명칭의 변화	54
5. 독도의 진실	56
6. 독도 수호를 위한 노력	71
- 중앙정부	
- 지방정부(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독도연표

한국의 울릉도·독도 인지와 기록

512
신라 이사부
우산국 정벌
(『삼국사기』, 145년)

1454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 독도
지리와 위치 기록

세종실록(1454)



1416
김인우를
우산 무릉동처안무사에 임명
(울릉도·독도 관할업무)

1531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우산도(독도) 표기

500' S

1400' S

1500' S

1697
숙종 울릉도 수도
제도 결정

1696
안용복, 자발적으로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
조선 영토 주장(2차)

1693
안용복, 울릉도에서
일본 오메(大谷)가문
선원들에게 의해
일본으로 납치(1차)

1882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일병,
울릉도 검찰

1808
『만기요람』
우산 = 송도(독도)라고 기록

1600' S

1800' S

1952
이승만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일명 평화선) 공포

1905
올사조약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1900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 관할 구역 울릉진도
(鬱陵全島)·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

칙령 제41호



2012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08
『정부 합동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
설치

2005
동도 입도제한 해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0' S

일본 및 세계의 울릉도·독도 인지와 기록

1625
일본,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 연해 발급

1696
일본 도쿠가와막부
울릉도 도해 금지령
다케시마 건설

1870
일본 외무성
조선국고제시달내함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
영사정』을 기록 외무성에
제출

1877
일본 태정관 지령
울릉도 외 1도(독도)
본국과 관계없음

태정관 지령



1905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영토 편입

1943
카이로 선언, 일본과
타오루르만티 연합령
독도 반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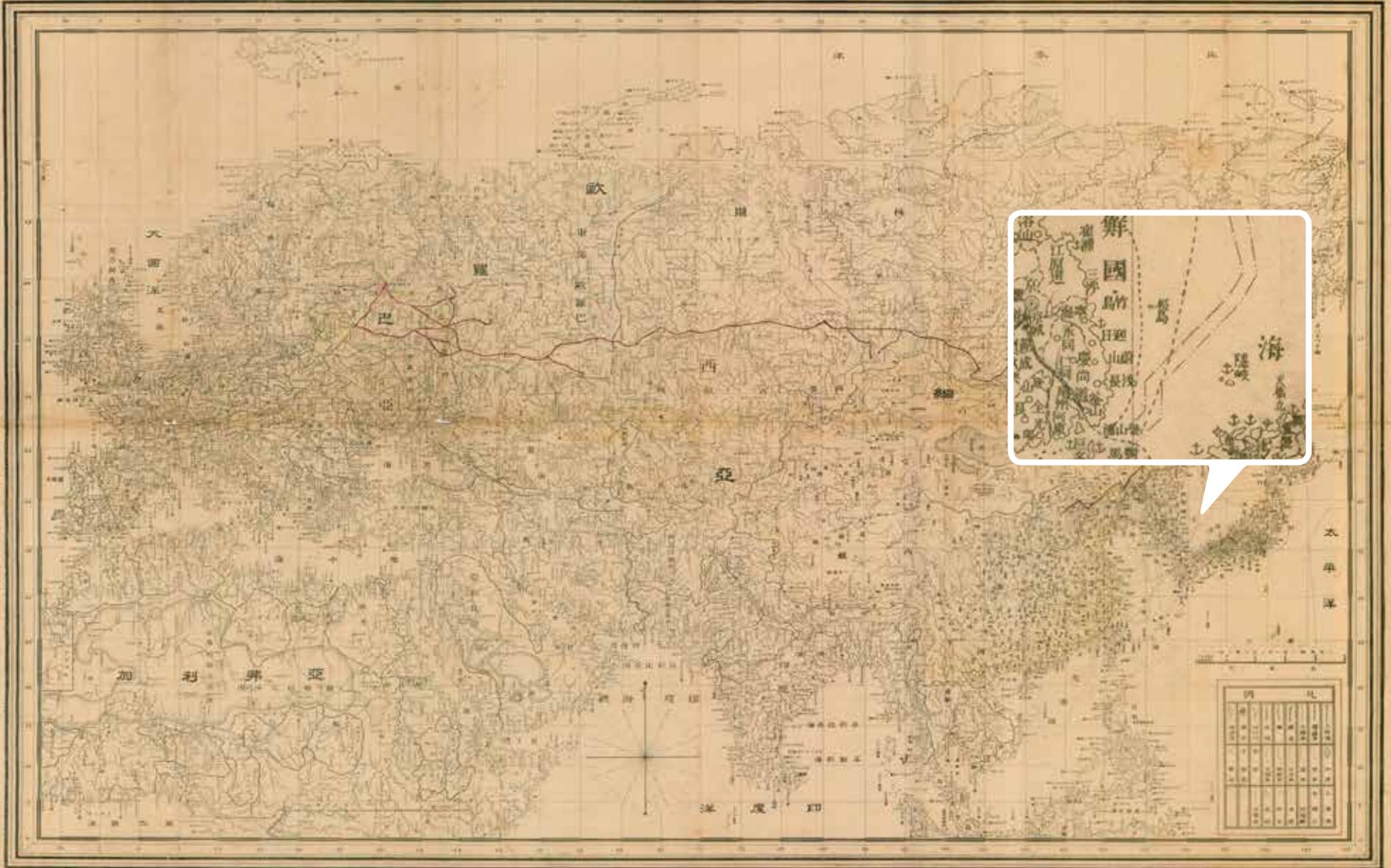
1946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독도를
일본에서 행정상 분리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이해(1951년)』 20면,
일방적 영토

2005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比例尺	
1:100,000	1:200,000
1:300,000	1:500,000
1:1,000,000	1:2,000,000
1:5,000,000	1:10,000,000
1:20,000,000	1:50,000,000
1:100,000,000	1:500,000,000
1:1,000,000,000	1:5,000,000,000

1. 고 문헌 속의 독도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년)

- “지증왕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 하슬라주(현 강원도 강릉지역)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내용이 기술
 -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



고려사(高麗史 1451년)

- “우산과 무릉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별개의 섬이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고 있다고 기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1년)

- “우산도, 울릉도는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 독도(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15세기에도 독도에 대한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이는 유일한 섬은 독도임을 감안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고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大韓帝國 勅令 第41號 1900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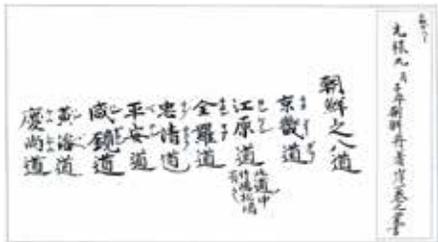
-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관할 할 것”
- 울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 돌섬)를 명시하고 있음
 -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4년여 앞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선언한 것
 - 발효 2일 뒤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공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1696년)

“강원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음.”

- 1696년 5월 오키섬(隱岐島)을 거쳐 호키주(白耆州)에 도착한 안용복을 취조해 막부에 보고한 진술문서
-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일본의 고문서에서 확인



태정류전 제2편 (太政類典 第二編 1877년)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島 :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메이지 10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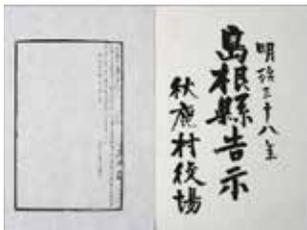
- 태정관(太政官, 메이지[明治] 최고관청, 현재의 내각)에서 죽도(竹島-울릉도) 외 1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최종 결정의 공문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2월 22일)

“북위 37도9분30초 동경131도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竹島라고 칭하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 관할로 정한다.”

-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본 관보나 신문 어디에도 실린 증거가 없어 독도 편입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불명 편입임을 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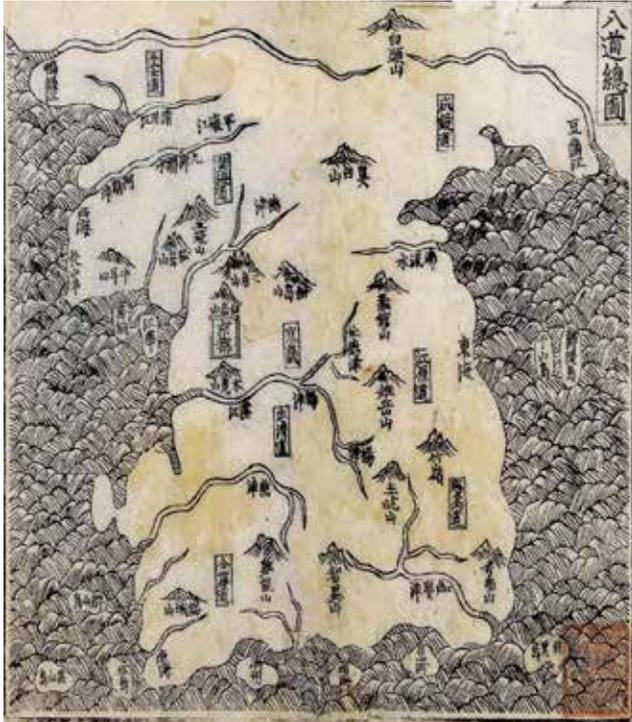
독도 관련 사료

<p>은주시청합기 (1667)</p>	<p>원문: “그런 즉 일본의 북쪽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의의: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일본 초기 기록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가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p>
<p>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한 돛토리번 답변서 (1695)</p>	<p>원문: “죽도(竹島: 울릉도)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부속이 아닙니다. (중략) 죽도(竹島)·송도(松島) 그 외 양국(兩國: 因幡國, 伯耆國)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이상. 의의: 울릉도와 독도가 돛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힘.</p>
<p>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 (1696)</p>	<p>원문: (전략) “오나고(米子)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오야 진키치(大谷甚吉)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죽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 정월 28일” 의의: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판단.</p>
<p>동국 문헌비고 (1770)</p>	<p>원문: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다.” 의의: 우산국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됨을 밝히고, 우산도가 일본의 송도, 즉 독도임을 증명함.</p>
<p>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1870)</p>	<p>원문: “죽도(竹島: 울릉도)·송도(松島: 독도)가 조선부속이 된 사정” 의의: 일본 외무성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밝히고 있음.</p>
<p>울릉군수 심홍택 보고서 (1906)</p>	<p>원문: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 의의: 독도가 울도군(울릉군)의 관할구역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줌.</p>
<p>증보문헌비고 (1908)</p>	<p>원문: “우산도·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芋山)이다. 속(續)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 ※ 속(續)은 고종시대에 첨부한 내용임. 의의: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모두 울도군의 관할임을 증명함.</p>

※ 동북아역사재단 「개정」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14.2.12 개정판) 참조.

2. 고 지도 속의 독도

팔도총도(八道總圖 1531년)



- 목판본, 26x34.6cm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東覽圖)에 수록
- 독도는 강원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우산도(于山島)로 표기
-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 지도 중에 독도(우산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지도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8세기 중엽)



- 채색필사본, 272.7x147.5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1757년 정사기(1678~1752)의 동국대전도를 모사한 지도
- 안용복 사건을 통해 촉발된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반영
-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로 정확하게 표현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1785년)



-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지도(76×109cm)
-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 큰 섬과 그 옆에 작은 섬을 그리고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채색
- '朝鮮 / 持之(조선의 것)'이라고 표기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1846년)



-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작성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 울릉도와 독도를 순수한 우리말의 발음 그대로 'Oulengto', 'Ousan'으로 표기
- 서구 세계에 최초로 소개된 우리의 지도

소학지리부도 주코쿠지방 (小學地理附圖 - 中國地方, 1908년)



- 문부성(文部省) 제작 (30.8×22.2)
-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이 제작한 소학교 지리과부도의 주코쿠지방 (中國地方)의 지도를 보면 독도가 없고, 오기섬만 표기되어 있음

심상소학국사회도 하권 (尋常小學國史繪圖 下卷, 19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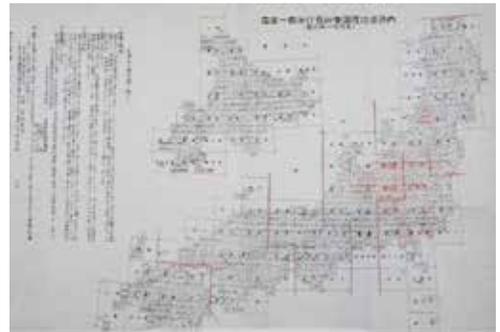
- 문부성(文部省) 제작 (11.7×9.9)
- 일본 소학교 6학년용 역사부도로서, p.40에 러일해전을 설명하면서 실려있는 일로전역요도(日露戰役要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과 같은 청회색으로 채색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 1936년)



- 일본에서 육도(陸圖)에 관한 한 가장 높은 정확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던 참모본부 직속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지도 (79×110cm)
- 조선부분에 울릉도와 죽도(竹島-독도)를 표기해 우리 영토로 인정

지도일람도(地圖一覽圖 1946년)



- 일본 내무성 지리조사소가 발행한 일본전국도(57×46.5cm)
-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반환되어야 할 땅으로 알고 있었음을 증명

3. 역사 속 독도 인물

군정청관할지도-일본, 한국 (軍政廳管轄地圖-日本, 韓國 1946년)



-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SCAPIN 제677호에 첨부된 지도(68.5×90cm)
- 울릉도와 TAKE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포함
-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

대일평화조약 초안의 부속지도 (對日平和條約草案附屬地圖 1951년)



자료제공 :
정병준(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 샌프란시스코조약 준비 과정에서 영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미국정부에 통보한 평화조약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도(82×69cm)
- 연합국에서도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였음

이사부(異斯夫)

이사부는 성이 김씨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일명 태종(恭宗)이라고도 한다.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는 하슬라주(何瑟羅州)[현재의 강원도 강릉시] 군주가 되어 우산국(于山國)[현재의 울릉도, 독도]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써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밧아 죽이겠다.” 고 하였는데,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했다. <삼국사기, 권4>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는 진흥왕 2년(541년) 병부령(丙部令)이 되어 562년까지 실권을 장악하며 동서남북으로 신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小國)이었으며, 우산국의 영역에 대해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문헌이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다.



안용복(安龍福)

1차 도일

숙종 19년(1693년) 박어둔 이하 10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 오야(大谷) 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해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에도막부의 관백(집정관)이 안용복에게 써준 서계를 빼앗고, 조선의 동래부에 인계했다.

[안용복의 행적]



— 1693년(숙종 19년)
1차 도일경로

..... 1696년(숙종 22년)
2차 도일경로

자료참고 :
동북아역사넷

2차 도일

숙종 22년(1696년) 봄에 해산물 채취를 나갔다가 또 다시 일본 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해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당시 돗토리번주 앞에 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兩島既屬國),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해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며 에도막부의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막부는 울릉도·독도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 사실(史實)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울릉도 안용복기념관

이규원(李奎遠)

이규원은 순조 33년(1833년) 3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19세에 무과로 공직에 나선 인물이다.

안용복의 활동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금지되었는데도 1881년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와 무단 벌목한다는 사실이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정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형편을 조사토록 하였다. 1882년 4월 30일에서 5월 11일까지 울릉도에 들어간 이규원은 울릉도의 지형과 토지 비옥의 척박 정도 외에 섬에서 산출되는 해산물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검찰일기>에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표목을 세우고 벌목을 하고 있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이규원의 보고에 따라 조정은 즉시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곧바로 울릉도 재개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883년 4월 각 도로로부터 16호 54명이 이주한 이래 울릉도 주민은 점차 늘어갔다. 1900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장관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규원의 검찰보고로 인하여 울릉도에서 400여 년 간 실시되었던 쇠회정책과 수토정책이 풀리면서 울릉도 관리정책이 수립되었다.

홍순칠(洪淳七)

홍순칠은 1929년 1월 23일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홍재현은 1883년 울릉도 재개척이 시작될 때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이주해 평생을 울릉도를 위하여 헌신했으며, 홍순칠은 어릴 때부터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屬島)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에 입대하여 함경북도 청진까지 진격 하였으나, 원산근처에서 전상을 입고 1952년 7월 특무상사로 전역하였다.

1952년 7월 말, 울릉도 경찰서 마당 한 쪽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 라고 쓴 표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때부터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군에서 제대한 청년들을 규합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사재를 털어 무기 등 장비를 구입하였다. 1953년 4월 독도에 첫 상륙한 이후 독도의용수비대를 이끌면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수차례의 총격전을 감행하였다. 갖은 고난과 악조건을 무릅쓰고 독도를 수호한 그의 활동은 오늘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5등 근무공로훈장과 1996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되었다.

5. 독도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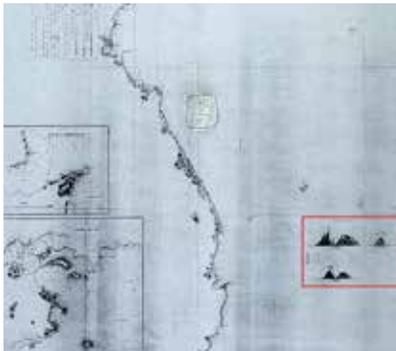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구보 세키시(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어지도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 개정 일본어지도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 더욱이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와 같은 관찬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정권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이후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리양코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자료 1>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 : 일본 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음.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한국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자료 2>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 관측이 가능함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 오늘날과 달리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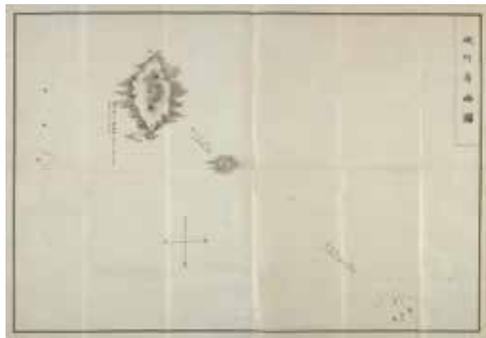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에도(江戸)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감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일본 외무성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송도(독도)가 한국땅임을 자인하였다.
-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간 교섭 결과를 토대로 “...풍요한 취지의 죽도(竹島, 울릉도)와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자료 3>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鐵竹島略圖 1877년): 시마네현의 ‘울릉도와 그 외 일도(一島)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내무성의 답변이 첨부된 지도. 기죽도(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와 독도를 함께 묶어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외 일도는 독도를 말하는 것임.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돛토리변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돛토리변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돛토리변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일본 오야(大谷) 가문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 내의 송도(竹嶋内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등의 기록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도해금지조치 이후 있었던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커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료 4>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 1월 28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돛토리변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일본 어민들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음.

안용복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 안용복의 도일(渡日)활동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감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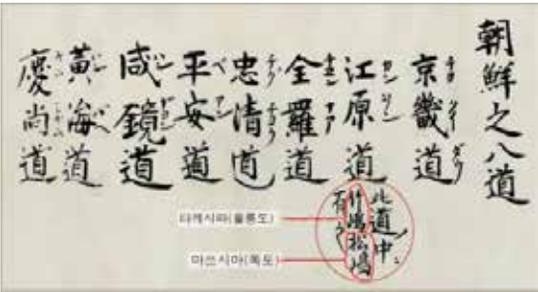
-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측의 독단에 불과하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속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이본백기지(異本伯耆志),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안용복 사건으로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독도가 돛토리변(鳥取藩)에 귀속한 시기를 묻는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돛토리변에 속하지 않는다'는 돛토리변의 회답이 있었다.
- 1696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米子) 주민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요나고 주민이 그 기간 독도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측 주장

은 타당하지 않다.

-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 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1696년)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자료 5> 1696년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 안용복의 2차 도일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음.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일반에게 널리 전해졌다.

-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제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제포획을 계속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지배했던 사실은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

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었던 것이다.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되었다.



<자료 6> 대한제국 관보 1716호(1900년 10월 27일) : 시마네현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회람용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발효 2일 뒤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공인되었음.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1)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적용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 연합국이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취급한 것은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침탈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UN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자료 7> 일본영역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년))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2)

일본의 주장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자료 8>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제막식(1950년 6월 8일) :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음.

일본 주장의 허구성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또한 독도가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는가 하면, 1952년 당시 거둬들인 독도 폭격 등이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은 일본 의회에서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 다음은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山本) 의원과 이시하라(石原) 외무차관과의 발언내용이다.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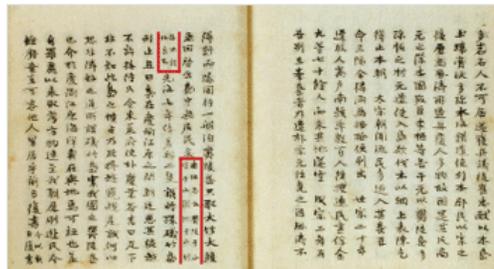
-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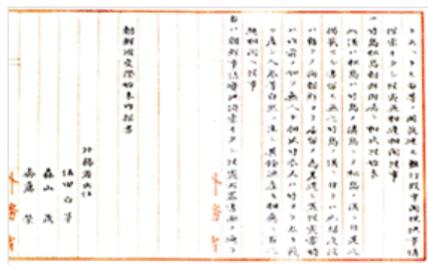
-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

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江戶)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明治)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자료 9> 만기요람(1808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음.



<자료 10>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1870년): 일본 의무성 문서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밝히고 있음.

지방정부(경상북도)

2005. 3. 16. 이전

- 1914년 독도를 경상북도 관할로 편제
 - ※ 강원도(울진현) → 경상남도(1906) → 경상북도(1914. 3. 1.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 1947. 6. 일본인의 독도 불법점거 및 한국인 어업금지 총격 사건 발생 사실을 정부에 보고
 - ⇒ 권대일 지방과장 외 1명,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조사단에 합류(8. 16.~28.)
- 1950. 6. 1948년 6월 8일 미 공군 폭격 연습으로 희생된 어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건 2주년을 맞아 위령비 제막
- 1953년 경상북도 의회, 일본의 독도 상륙 소식을 접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규탄 결의문' 채택(7. 10.)
- 1954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지표' 영토표석 건립
- 1997년 독도박물관 개관(8. 8.)
- 1998년 『울릉도·독도 종합연구』 발간(11. 23.)
- 1999년 독도 정주여건 조성 사업지 지원을 건의(3. 26.)
 - 일본인의 독도 호적 등재 사실 확인 및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외교부에 건의
- 2000년 울릉군의회 독도리 신설 조례 가결 (도동리 ↔ 독도리)
- 2002년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구축



2005. 3. 16. 이후

2005. 3. 16.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소위 '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전면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자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파기·단교를 선언하고, 독도 전담부서를 조직함.

독도 전담부서 설치

- 2005. 3. 16. 자치행정과 독도지킴이팀 신설
 - ※ 2005. 4. 18.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설치
- 2008. 7. 17. 과 단위로 조직 확대 개편
- 2009. 3. 31. 독도재단 설립 허가
- 2014. 2. 14. 독도정책관으로 개편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추진

- 국기게양대 설치('11)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09~'15)
- 독도 방파제 건설 추진('09~'20)
-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09~'13)
-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 개발(일주도로, 사동항, 울릉공항 등)

독도 관리 및 주민 지원

-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조례 제정('06. 11. 2./ 시행 '07. 1.)
- 독도 주민숙소 운영
 - '11. 5. 건물 확장 개축(지상 4층, 면적 373.14㎡)
- 독도관리선(평화호) 운영 : '09. 6. 25. 취항

독도 연구활동

- 독도박물관 운영
 - 1997. 8. 8. 개관, 전문 영토박물관
 - 연면적 1,000㎡, 전시면적 519㎡, 66종 1,417점 소장
-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운영('08. 3. 발족)
 - 대학연구소 7, 연구원 2개소
 - 학술대회, 독도시민강좌, 전시회 등
- 독도사료연구회 운영('10. 2. 발족)
 - 『竹島考』완역('10)
 - 『울릉도 쟁계 관련 책문 발견』의의('11)
 - 『竹嶋紀事』해제 및 탈초본('12)
 - 『竹嶋紀事』완역('13)
 - 『竹島問題100門100答』에 대한 비판,('14)
- 독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연 6~8회 독도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 독도연구자료 발간
 - 『독도총서』('08)
 -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09)
 - 『독도주민생활사』 화보집('10)
 - 『The Story of Dokdo Residents』 영문 화보집('11)

독도 홍보활동

- '독도의 달(10월)' 조례 제정 ('05. 7. 4.)
- 독도 홍보자료 제작·배부
 - '독도 올바르게 알기' 소책자('06)
 - '동해바다 독도' 리플릿('07)
 - '만화로 풀어가는 독도 이야기'('08)
 - '독도' 팸플릿 11개 언어('08)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12)
- '평화의 섬 독도' DVD('06)
- '생명의 땅 독도' DVD('09)
- '대한민국, 독도' DVD('12)
- 독도자료 순회 전시회 개최
 - 국내 전시회 2006년부터 연 4, 5회
 - 해외(워싱턴, 뉴욕, L.A.) 전시 홍보 : 2009 이후 매년
- 사이버 홍보시스템 운영
 - '사이버 독도'(www.dokdo.go.kr) 운영('02)
 -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05)
 - '모바일독도'(www.m.dokdo.go.kr) : 스마트폰 종합정보 제공
 - 독도입도종합지원시스템(www.intodokdo.go.kr) : 독도입도 신청

독도 교육 및 탐방 활동

-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운영 - 반크 위탁
 - 2014. 10. 회원 9만 2천명
 - 독도 및 대한민국 홍보대사 양성, 독도캠프 개최, 홍보물 배부
 - 해외 교과서·세계지도·웹사이트 오류조사 및 시정 활동
-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
 - ※ 포항해양과학고교, 울릉북중학교
 - 해양탐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바다학교 운영
- 독도 탐방활동 지원
 -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 : 70명
 - 경북지역 원어민교사 독도 탐방 : 55명
 - 외국인 유학생 독도탐방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 100명
- 2015. 7. 경상북도&재미한국학교협의회 독도교육 MOU 체결

독도명예주민 신청안내

신청가능 대상자

-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화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

신청기간

-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화관람한 다음날 이후로 한다.
- 독도 방문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명예주민증 신청가능

독도명예주민증

-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함으로써, 독도의 위상강화 및 애국심 고취

※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자 : 27,120명(내국인 26,780 / 외국인 340)



독도명예주민증 앞면



독도명예주민증 뒷면

신청방법

홈페이지 : www.intodokdo.go.kr/member

Step 1. 본인확인

- 내국인 : 휴대폰 번호 인증
- 외국인 : 여권번호 입력

Step 2. 방문여부확인

- 입도일자, 승선권번호, 연락처 입력

Step 3. 신청정보입력

- 증명사진, 수령지 주소 입력

Step 4. 신청완료 확인

독도명예주민증 발송 비용

명예주민증 발급수수료 및 우편 발송비용 전액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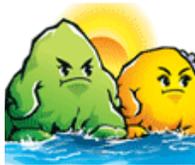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

- 정부 차원의 대응은 외교 문제 발생 우려
-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더 높음
-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 병행 필요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에 독도를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온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로 인지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독도이야기

가산도(우산도)의 비밀



어부 세 명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그날 따라 이상하게도 고기라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하늘에서 구름이 퍼지기 시작하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도 일렁이기에 모두 놀라 서둘러 돌

이갈 차비를 하였다. 그러나 바람은 점점 더 거세어 갔고 파도는 이제 뱃전을 치며 노조차 젓지 못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노 젓기를 이제 단념하고 운을 하늘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었다.

어둠이 차츰 덮이자 허영게 뒤집히는 파도는 배와 사람을 일시에 삼키려는 듯 닥쳐다가는 지나가고 하는데 배는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과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 사람은 그저 죽었구나 하고는 배 바닥에 엎드려 정신이 없었다. 배가 어디로 떠 내려가는지 방향은 물론 알 수가 없었다. 이러기를 사흘, 간신히 바람도 멎고 파도가 잠잠해지자 세 사람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시퍼런 바다와 하늘에 떠있는 구름뿐이었다. 사흘을 굶은 그들에게는 이제 노를 저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으니 그저 절망감만이 그들의 가슴을 엄습할 뿐이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내맡겨 두는 도리밖에 없었으며, 서로 이야기할 기력조차도 이들에게는 없었다. “어어-, 저것 보게!”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머지 두 사람도 일어나 소리란 사람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저 멀리 구름인지 안개인지의 분간을 못하겠으나 밀쪽으로 거꾸름하게 보이는 것이 육지 같았다.

눈을 닦고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육지였다. 절망에 빠져있던 세 사람은 동시에 환성을 질렀다. “살았다-” “이제는 살았구나”



한중 학술대회(2016.4)



일본 오사카모임 학술대회(2016.2)



제6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2016.9)



제7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국제대회 시상 전체 기념사진(2016.8)



독도sns포터즈발대식-독도와락(2016.10)



찾아가는 해외한국학교 독도바로알기교육 대련한국국제학교(2016.5)



미국 델러스 한국학교 지원(2016.9)



NAKS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2016.7)

세 사람은 꼭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였다. 그리고 용기가 솟아났다. 세 사람이 다같이 노를 저었다. 다행히 물결도 그쪽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 간신히 그 곳에 다다라 보니 어안이 병병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위를 쳐다보니 여전히 안개는 자욱할 뿐이었다. 그저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노를 저어 나갔다. 간신히 한 곳에 이르니 겨우 사람이 발붙일 만한 곳이 눈에 띄었다. 배를 붙이고 내려보니 길도 없고 그저 바위투성이 이었다.

세 사람은 이곳저곳을 헤매며 쏘다니다가 간신히 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안개는 여전히 자욱하였다. 안개가 짙은 가운데에도 살펴보니 울창한 왕대밭이었다. 세 사람은 그러한 것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선 무엇이든 간에 허기를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이리저리 헤매다보니 무엇인가 앞에 보였다. 수염이 하얀 노인 한 분이 문을 열어 놓고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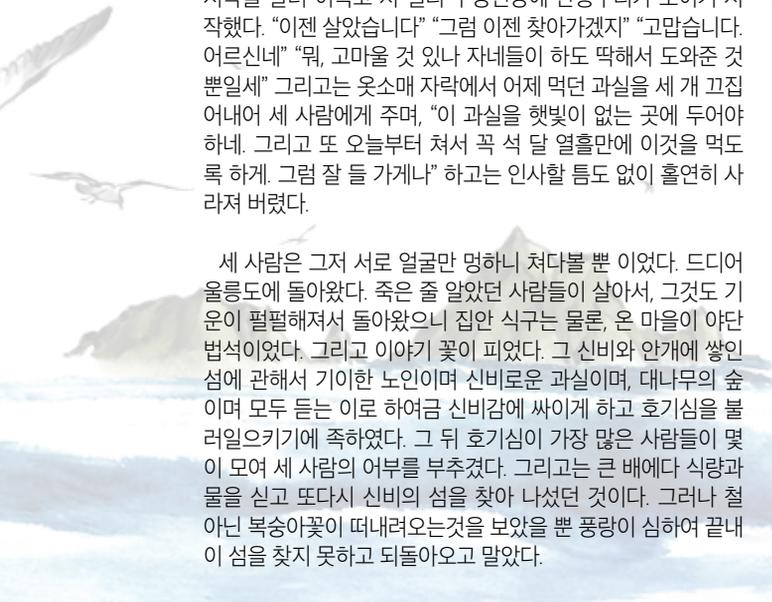
세 사람은 다짜고짜 그 앞에 가서는 절을 넘죽 하였다. “웬 사람들인고?” 노인의 음성은 점잖은 가운데도 우렁찼다. 그리고 그 눈매는 빛났으며, 용모는 단아하였고, 범치 못할 위엄이 있었으며, 속기(俗氣)를 떠난 선기(仙氣)마저 보이는 것 같았다.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허어 그 사람들 고생 꽤나 하였겠구먼” 하고는 그저 멀거니 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답답해진 세 사람은 다시 “저희들은 오늘까지 나홀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허기와 갈증에 지쳐 있으니 물과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물은 없고, 사람이 먹을 것이라곤 없는데 어찌하니” 세 사람은 어안이 병병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이 없다니 도대체 될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고 제각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이 선뜻 일어서더니 무엇인가를 방에서 가져 나오더니 “자 그럼 이것이라도 먹게나” 하고 노인이 내미는 것을 보니 꼭 사과같이 생겼는데

사과는 아닌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우선 이판에 이것저것 가려볼 겨를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과실을 먹어치웠다. 어떤 맛이었는지조차 몰랐다. 허기진 판이라 허겁지겁 먹느라 맛인들 알았으랴? 우선 심한 갈증을 좀 면한 것 같았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 터이라 염치 불구하고 한 개씩만 더 줄 것을 간청하니, “아니, 이 사람들이 그것 한 개면 1년을 살 수 있는 건데”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보니 허기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하룻밤을 그 집에 자고 나니, 세 사람은 완전히 생기를 되찾았다. 아니 생기를 되찾았다기 보다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았다. 노인이 안에서 나오더니,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가자이 식물들이 몹시 기다릴텐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디 방향을 알아야 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면 내가 길을 인도하지”하여 네 사람은 배에 올랐다. 그리고는 손뽀에 돛을 올려, 노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배를 몰았다. 뒤돌아보니 섬은 여전히 안개에 싸여 있었다. 여러 시각을 달려 이윽고 저 멀리 수평선상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살았습니다” “그럼 이젠 찾아가겠지” “고맙습니다. 어르신네” “뭉, 고마울 것 있나 자네들이 하도 딱해서 도와준 것 뿐일세” 그리고는 옷소매 자락에서 어찌 먹던 과실을 세 개 끄집어내어 세 사람에게 주며, “이 과실을 햇빛이 없는 곳에 두어야 하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쳐서 꼭 석 달 열흘만에 이것을 먹도록 하게. 그럼 잘 들가게나” 하고는 인사할 틈도 없이 훌연히 사라져 버렸다.

세 사람은 그저 서로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드디어 울릉도에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그것도 기운이 펄펄해져서 돌아왔으니 집안 식구는 물론, 온 마을이 야단법석이었다. 그리고 이야기 꽃이 피었다. 그 신비와 안개에 쌓인 섬에 관해서 기이한 노인이며 신비로운 과실이며, 대나무의 숲이며 모두 듣는 이로 하여금 신비감에 싸이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였다. 그 뒤 호기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몇이 모여 세 사람의 어부를 부추겼다. 그리고는 큰 배에다 식량과 물을 싣고 또다시 신비의 섬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철 아닌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것을 보았을 뿐 풍량이 심하여 끝내 이 섬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다.



III. 미리 풀어보는 독도 골든벨



www.koreadokdo.or.kr

1. OX문제	88
2. 난이도(하)	92
3. 난이도(중)	96
4. 난이도(상)	100
5. 패자부활전	112

1. OX 문제



- 1 독도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섬, 즉 무인도이다.
- 2 일본의 주장과 달리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 3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랫말처럼 독도는 외로운 섬 1개로 구성되어 있다.
- 4 독도경비대, 유인등대, 어민숙소 등 모든 시설물은 동도에 있다.
- 5 일본의 역사서에는 울릉도가 죽도(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 6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읍 독도리이다.
- 7 '석도' 또는 '돌섬'이라고 불렸던 독도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 8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울진이다.
- 9 현재 독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 10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동도 중앙의 천장굴이 분화구이다.



- 11 수심이 깊고 넓은 동해에는 독도를 포함한 섬이 많지 않아 수산자원이 부족하다.
- 12 유인도의 조건 중 하나인 식수를 독도의 서도에서 구할 수 있다
- 13 제주도-울릉도-독도 등 우리나라 해양성 화산 섬 중에서 독도가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다.
- 14 현재 독도의 영해는 통상기선으로 12해리까지 설정되어 있다.
- 15 20세기 러일전쟁을 승리한 이후 '임자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야욕은 시작되었다.
- 16 일본의 로비로 인해 연합국의 일본강화조약 초안에서 돌려줘야 할 섬 명단에 독도가 빠져 있었다.
- 17 독도에서 서식했던 강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때문에 사라졌다.
- 18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봉 정상에 올라가야만 한다.
- 19 독도가 있는 해산은 한라산보다 높다.

2. 난이도(하)



- 1 독도는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섬 2개의 이름은?
- 2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00리 1~34, 37~96번지다. 00에 들어갈 주소는?
- 3 주민 숙소가 있는 곳은 독도의 섬 중 어디인가?
- 4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섬으로 독도와 이 섬과의 거리는 157.5km이다. 이 섬의 이름은?
- 5 다음 중 독도의 옛 이름이 아닌 것은?
①우산도 ②삼봉도 ③죽도 ④가지도 ⑤석도
- 6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몇 km일까?
- 7 독도의 최초 주민이었던 이 분의 이름은?
(힌트 : 최OO)
- 8 바다사자(물개과)의 한 종류로 독도에 많이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멸종되어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은? (힌트 : 두 글자)
- 9 독도의 맨 처음 이름으로 가장 오랫동안 불린 이름은? (힌트 : OO도)
- 10 독도의 옛 이름중 'OO'의 이름을 풀이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다. 'OO'에 들어갈 독도의 이름은? (힌트 : O도)





- 11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1903년부터 3년간 울릉군수로 재직 한 이 사람은? (힌트 : 심OO)
- 12 다음 섬들이 먼저 생겨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울릉도 ②독도 ③제주도
- 13 조선 숙종 때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자 이를 막기 위해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항의한 사람의 이름은?
- 14 1997년 8월 울릉도에 개관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영토박물관은?
- 15 1953년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의 이름은?
- 16 1954년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영토 주권을 행사한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 주재 각국 공관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항만에 통보한 내용은?
- 17 독도의 도로명 주소는 동도가 000길, 서도가 000길이다. 000에 들어갈 말은?
- 18 한반도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독도의 섬은 어디인가?
- 19 강한 해풍과 극히 열악한 토양조건 등의 환경을 가진 독도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중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엇인가?



3. 난이도(중)



- 1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 땅에 포함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의 이름은?
- 2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날이 속한 달을 '독도의 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울릉군이 '독도의 날'을 정해 기념하고 있는데 '독도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
- 3 일본 중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은 오키섬이다. 그렇다면 독도와 오키섬의 거리는 몇 km 일까?
- 4 우리 나라 역사 자료 중 독도의 기록이 없는 자료는?
 ①삼국유사 ②만기요람 ③숙종실록
 ④신증동국여지승람 ⑤세종실록지리지
- 5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이것'을 반포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힌트 : 대한제국 OO 제OO호)
- 6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인 이곳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내린 지령은? (힌트 : 000 지령)
- 7 서도 북쪽 해안에 위치한 이곳은 하루에 400리터의 물이 고이는 곳으로 독도에서 유일하게 물이 나와 독도가 유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이곳의 이름은? (힌트 : 두 글자)
- 8 외교부 독도 누리집의 정부 기본 입장이다. '독도는 000, 000, 0000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9 6.25전쟁 당시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일본이 독도로 침입하는 일이 많았다. 1953년 33명의 ()가 독도로 들어가 독도를 지켰다. 1956년 국립경찰이 임무를 맡으면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10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키면서 일본이 세워둔 풋말을 뽑고 동도의 바위에 새긴 글은? (힌트 : 세 글자)

11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문서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문서의 이름은?

“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12 다음 인물의 활약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십시오.

- ①안용복 ②이사부
- ③홍순철 ④심흥택

13 안용복의 항의로 인해 에도막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여 이곳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취소한 것은 무엇인가?

14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이곳’에 회부하고자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곳’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곳’의 이름은?



4. 난이도(상)



1 우산도는 가장 오랫동안 독도를 부르던 명칭이다. 독도라고 칭하기 전 독도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우산도 → 00도 → 00도 → 0도 → 독도

2 1849년 프랑스 배가 독도를 발견 후 배 이름을 따서 독도를 ‘이것’으로 불렀다. 이 섬의 이름은? (힌트 : 00000섬)

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밝힌 이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에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은 자유독립국가임을 결의 한다”라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 ‘선언’은?

4 독도 주변에 묻혀 있는 고체 형태의 지하자원이 다.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게 생겨서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이 지하자원의 이름은?

5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지도로 1531년에 편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 전도로 우산도(독도)의 위치가 울릉도 안쪽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더 강렬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6 1881년 고종은 000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고 울릉도 사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과정을 울릉도 검찰일기에 남겼고, 이를 계기로 울릉도를 개방했다. 이 사람은?

7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인해 1945년에 설정된 맥아더 라인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명의로 모두 4개 조로 된 이 ‘선언’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의 인접 해안에 있는 모든 자연 자원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였으며 해양 경계선도 그었다. 이 ‘선언’은?



- 8 독도의 해저자원 중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하 지대에 존재하는 물이다. 수온이 항상 2도 이하를 유지하며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하고 유기오염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을 무엇이라고 할까?
- 9 1946년 6월 22일 이 '문서'로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약 22km)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 문서는 무엇일까?
- 10 독도는 높이가 2,000m가 넘고 하부 지름이 30km에 이르는 거대한 화산의 일부이다. '이것'은 상부가 여의도보다 10배나 넓은 평평한 평정해산이다. '이것'의 동쪽에는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이라는 평정해산도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 11 "일본 북서쪽의 땅은 오키섬으로써 경계를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1667년 이즈모(현재의 시마네현) 관리인 사이토 호센이 기록한 것으로 일본 문헌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기록이 처음 등장한 서책의 제목은?
- 12 일본 메이지 정부는 1869년에 외무성 관료 3명을 조선에 보내어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도록 지시했다. 이 외무성 관료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870년에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증거를 감추고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이 문서는?
- 13 조선 초기부터 순심경차관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숙종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는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1895년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제도'는?



- 14** 1693년 4월과 1696년 1월 2차례에 걸친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확정하게 되면서 에도막부가 지방으로 내려 보낸 명령은 무엇일까?
- 15**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데려와 살도록 한 정책이다. 왜구의 침입 등을 우려하여 채택한 도서정책의 하나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던 이 정책은?
- 16**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조선의 조정과 대마도도주 사이의 교섭에서 에도 막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의견을 준 문서(답변서)는 무엇일까?
- 17** 1951년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를 일본의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지도’는?
- 18**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인 황색으로 표시된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의 부속지도는 무엇일까?
- 19**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상관없다(죽도외일도 본방관계무)’라는 내용에서 ‘외일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부속지도인 이것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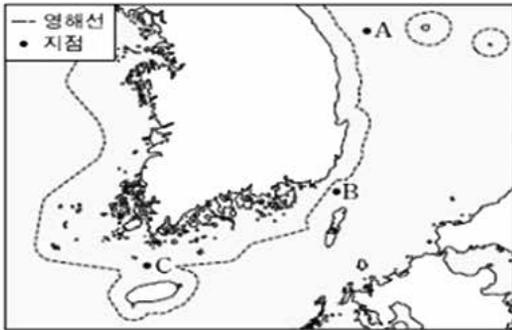
독도 관련 수능기출문제

☞ 2017년 한국지리 6번 문항

6. 지도의 A~C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사전 허가가 없음을 전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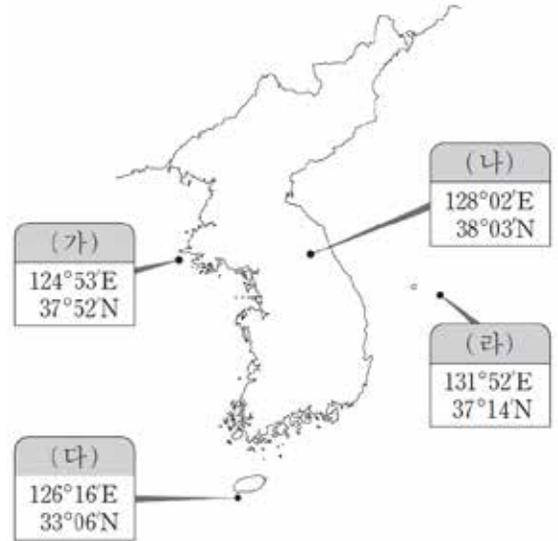
【3점】



- ① A : 우리나라 자원 탐사선이 탐사 활동을 함.
- ② B : 외국 화물선이 항해함.
- ③ C :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항해함.
- ④ A, C : 우리나라 어선이 고기잡이를 함.
- ⑤ B, C : 외국이 인공 섬을 설치함.

☞ 2016년 한국지리 1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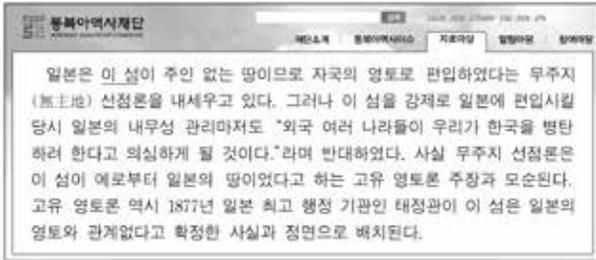
1.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극서)에 위치한다.
- ② (나)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지나는 곳이다.
- ③ (다)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 ④ (가)는 (라)보다 일몰 시각이 이른다.
- ⑤ (다)와 (라)는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 2012년 한국 근·현대사 4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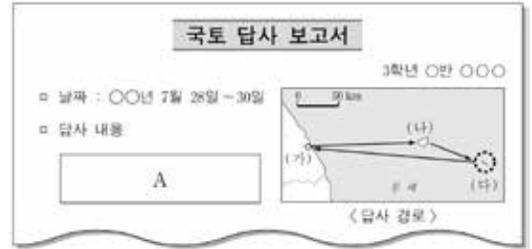
4. 밑줄 친 '이 섬'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프랑스가 침략하여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 ②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 점령하였다.
- ③ 영국군이 한때 점령하였다가 철수하였다.
- ④ 러시아가 저탄소를 설치하려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⑤ 일본이 거류지를 설치하고 중계 무역을 실시하였다.

☞ 2012년 한국지리 1번 문항

1. 다음 자료는 학생이 지도의 (가)~(다)를 답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이다. A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 항구를 출발해 (나) 섬으로 이동하는 내내 우리 영해를 벗어나지 않았다.
- ㄴ. (나) 섬의 정상에 올라 칼데라 분지를 관찰하였다.
- ㄷ. (다)의 국토 최동단 표석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 ㄹ. (다)에서 직선 기선의 기점 좌표를 GPS 기기로 실측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0년 한국지리 17번 문제에서

17. (가), (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가) 이 산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어서, 나라의 빛나는 양산(陽傘)처럼 되어 있다. 위에는 큰 못이 있어 주위가 80리에 이른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압록강이 되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혼동강이 되는데, 두만강과 압록강 안쪽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나) 숙종 때 삼척 영장(營將) 장한상이 함경도 안변에서 물의 흐름을 따라 배를 띄워 동남쪽을 향하다가 이틀 만에 비로소 큰 산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 ` (중략) ` … 아마도 이곳이 옛 우산국일 것이다.

- `이중환, 『택리지』` -

<보기>

- ㄱ. (가)는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 ㄴ. (가)에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생긴 호수가 있다.
- ㄷ. (나)의 영해 설정 기준은 직선 기선이다.
- ㄹ. (나)에는 해안 저지대를 따라 조업수림이 분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07년 한국 근·현대사 13번 문항

13. 밑줄 친 ‘이 섬’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나라가 이 무인도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따르면 1903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바,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섬을 본국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 `일본 내각회의 결정, 1905` -

- ① 우리 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해 온 역사를 알아본다.
- ②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의 국제법상 문제점을 살펴본다.
- ③ 일본의 침탈에 대응한 대한 제국 정부의 활동을 조사해 본다.
- ④ 우리 영토임을 확인해 주는 1905년 이전의 일본 문서를 찾아본다.
- ⑤ 일본이 만주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청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검토한다.

5. 패자부활전



다음 중 독도에 살고 있는 조류 중에서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비슷한 새 이름은?

- 1. 꿩이갈매기 2. 바다제비
- 3. 흑비둘기 4. 매

이 위인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어부이다.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울릉도는 우리 조선땅이요. 조선사람이 조선땅에 들어갔는데 왜 붙잡아 왔소?”라고 에도막부의 조정에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켰다. 이 위인은?

- 1. 이규원 2. 안용복
- 3. 이사부 4. 이항

현재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는 다음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 1. 육군 2. 해군
- 3. 공군 4. 경찰

독도는 어느 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로 복속되었나?

- 1. 고구려 2. 백제
- 3. 신라 4. 조선

동해의 아름다운 섬!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 몇 호로 지정되었을까?

- 1. 87 2. 157
- 3. 217 4. 336

IV. 내 손안의 독도 이야기



www.koreadokdo.or.kr

1. 독도 지명(지도)	116
2. 독도 및 부속도서(표기 기준과 좌표)	118
3. 독도 누리집 소개	120
4. 해좌전도(지도)	122

1. 독도 지명(지도)



- ☞ 독도지명 고시변경 내역(2012. 10. 29일자 관보에 고시)
- 제정(4) - 대한봉, 우산봉, 전차바위, 해녀바위
 - 변경(2) - 탐건봉(바위) → 봉우리, 코끼리바위(위치 직표 변경)



2. 독도 및 부속도서 표기 기준과 좌표 (국토지리정보원)

No	지명		종류	경도	위도	고시일
	한글 (한문)	로마자				
1	독도 (獨島)	Dokdo	도서	131-51-40	37-14-40	'61. 4. 22
2	동도 (東島)	Dongdo	도서	131-51-50	37-14-30	'00. 12. 30
3	서도 (西島)	Seodo	도서	131-51-30	37-14-40	
4	우산봉 (于山峰)	Usanbong	봉우리	131-52-10.4	37-14-26.8	
5	대한봉 (大韓峰)	Daehan-bong	봉우리	131-51-54.6	37-14-30.6	
6	큰가제 바위	Keungaje- bawi	바위	131-51-49.9	37-14-49.9	'06. 1. 6 '11. 8. 26
7	작은가제 바위	Jageungaje- bawi	바위	131-51-51.6	37-14-48.6	
8	지네바위	Jinebawi	바위	131-51-47.3	37-14-36.6	
9	넙덕바위	Neopdeok- bawi	바위	131-51-42.5	37-14-28.6	
10	군함바위	Gunham- bawi	바위	131-51-45.1	37-14-30.3	
11	김바위	Gimbaw	바위	131-51-58.1	37-14-36.8	
12	보찰바위	Bochal-baw	바위	131-51-42.4	37-14-22.6	
13	삼형제굴 바위	Samhyeon- gjegulbawi	바위	131-52-02.6	37-14-33.1	
14	달바위	Dakbawi	바위	131-52-07.2	37-14-28.8	
15	춧발바위	Chutbalbawi	바위	131-52-09.8	37-14-17.2	

No	지명		종류	경도	위도	고시일
	한글 (한문)	로마자				
16	춧대바위	Chotdae- bawi	바위	131-52-02.1	37-14-28.0	'06. 1. 6 '11. 8. 26
17	미역바위	Miyeok- bawi	바위	131-52-00.8	37-14-28.4	
18	물오리바위	Murori- bawi	바위	131-52-19.9	37-14-24.5	
19	숫돌바위	Sutdol- bawi	바위	131-52-04.3	37-14-21.4	
20	부채바위	Buchae- bawi	바위	131-52-04.6	37-14-19.5	
21	얼굴바위	Eolgul- bawi	바위	131-52-12.1	37-14-20.6	
22	독립문바위	Dongnim- bawi	바위	131-52-18.4	37-14-23.9	
23	천장굴	Cheonjang- gul	굴	131-52-10.3	37-14-24.5	
24	한반도바위	Hanbando- bawi	바위	131-52-14.5	37-14-26.2	
25	탕건봉	Tanggeon- bong	봉우리	131-51-55.9	37-14-36.8	
26	물골	Mulgol	골짜기	131-51-51.9	37-14-33.0	
27	코끼리바위	Kokkiri- bawi	바위	131-51-47.2	37-14-26.1	
28	해녀바위	Haenyeo- bawi	바위	131-52-07.8	37-14-18.2	
29	전차바위	Jeoncha- bawi	바위	131-52-10.2	37-14-19.2	

3. 독도 누리집 소개

독도재단

홈페이지 www.koreadokdo.or.kr

블로그 dokdojd.blog.me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kdojd

유튜브 www.youtube.com/user/dokdojd

- 경상북도 사이버독도 www.dokdo.go.kr
- 독도박물관 www.dokdomuseum.go.kr
- 외교부 dokdo.mofa.go.kr/kor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www.dokdohistory.com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
www.dokdo.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www.ilovedokdo.re.kr
- 국립해양조사원 www.khoa.go.kr
-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 반크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dokdo.prkorea.com
-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dokdo.gbpolice.go.kr
- 국립수산물과학원 독도수산물연구센터
www.nifs.go.kr/dokdo
-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넷
dokdo.ngii.go.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dokdo.i815.or.kr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www.dokdomuseumseoul.com
- 독도아카데미
www.dokdoacademy.com
- 독도관리사무소
dokdo.ulleung.go.kr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geopark.ulleung.go.kr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ulleungdokdo.kiost.ac
- 독도사이버전략센터 K-독도
www.k-dokdo.com



4. 해좌전도(海佐全圖)

- 19세기 중엽, 55.8X98.3cm, 목판본
- 18세기 정삼기의 동국지도 이후 축적된 자료가 잘 반영된 지도
- 울진에서 표시된 뱃길을 따라 울릉도(鬱陵島)와 독도(于山)가 그려져 있고, 우측으로 울릉도의 역사와 지리를 기술









대한민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독도**

초 판 1쇄 인쇄 2015년 12월 2일
1쇄 발행 2015년 12월 8일
2쇄 발행 2017년 3월 00일

발행처 (재)독도재단
발행인 노진환 이사장
편집인 조훈영 사무처장
발행부서 네트워크팀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 11
전 화 053.742.8156
홈페이지 www.koreadokdo.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kdojd
블 로 그 dokdojd.blog.me

